



Getty Images Bank

정부·기업·대학 ‘4차 산업혁명 동맹’ ... 대한민국의 새 미래 그린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고용 한파로 힘들어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높은 실업률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고, 기업 매출도 감소하면서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청와대에는 일자리수석이, 정부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출도산을 늘리는 약속

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형 기술 정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평가에서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에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부문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 위주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결국 창업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벤처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핵

청년실업률 9.2% 역대 최고 정부·기업·대학 유기적 협력 청년 ‘미래 일자리’ 늘려야

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환경, 보건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발(發)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 물은

사막은 것도 일상이 됐다.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기업은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맞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고용할 기업과 이들 기업이 이뤄져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지속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향후 100년, 200년 경제를 이끌 기술 개발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기업, 대학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

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도 좋지만 다양한 기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보텀업(bottom-up) 형태의 국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대학은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산·학·연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중간자 역할을 하며 산업,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장을 찾아 가봤다. 전혜숙 기자 hayonwe@hankyung.com

‘中企 혁신의 동반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스톱 기술지원

성과 맞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육성 위주의 경제정책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중소기업은 한국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경제의 뼈대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기반 균형발전 대한민국, 혁신성장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김경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산연전용)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R&D)에만 전념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 만족도가 높다.

KCL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원스톱 기술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술분야(화학소재, 생활안전,



글로벌 新시장 진출 성공 매출 작년보다 91억 늘어

바이오 등)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산연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기술분부와 연계하고, 자

체적으로 보유한 특수시험장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KCL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MAS컨설팅, K마크 인증기관으로 제품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객 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공신력 부여를 위해 공인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이런 노력 덕에 KCL 시험성적서는 대외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우수해 고객만족도가 높다.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수수료 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KCL은 Aquatech China 2017 등 여러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 결과 KCL이 지원한 10개 기업이 글로벌 신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도 올렸다. 활발한 산연전용 사업 수행활동으로 관련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26건, 등록 1건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수혜기업 17곳은 과제 수행을 통해 13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1억여원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삼원FA, 한독크린텍 등 총 37개 중소기업이 KCL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고성능 3D Hybrid Chemical Air Filter’를 개발 중인 한독크린텍의 공기청정기 탈취 필터는 3대 가스(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를 97.8%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습식식 제설제를 개발 중인 지오에코텍은 기존 제설제인 염화칼슘 대비 약 100% 향상된 용해 성능을 확보하는 등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통해 양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제품 완성도는 끌어올려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中企가 튼튼해야 국가도 튼튼 기술 보호와 특허 창출에 주력”

김경식 KCL 원장

김경식 원장(사진)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 중소기업이 개발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확보, 시험·인증, 임상시험 등이 필요한데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해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돕는 것이 바로 KCL의 주된 임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연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및 인력 양성 등 토털 솔루션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보호와 특허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과제 수행 단계부터 랩미팅이 가능하도록 기술 분야별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과 함께 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기술 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발굴과 연구기획, 과제평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여가서 중단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험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출시 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험, 인증, 연구장비 사용 관련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